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간직하며 사는 남자

취

미를 소개할 때 가장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영화감상이 아닐까. 하지만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바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즐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고작 극장 몇 번 찾는 것으로 영화감상을 취미라 불렀다면, 이 사람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얘기다. 단순히 수동적인 감상에서 벗어나 영화를 자신의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벤처인, 유포화 팀장을 소개한다.

'포트리스 시리즈'로 알려진 온라인 게임 개발 서비스 회사 CCR의 홍보팀에 근무하는 유포화 팀장. 그의 방 안 구석구석에는 200여 개의 비디오테이프가 잘 보관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의 취미가 비디오테이프 수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가 모은 비디오테이프는 단순한 수집을 넘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특별함은 모두 영어대사로 된 영화라는 점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영화를 워낙 좋아했던 유포화 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극장을 찾는 일도 줄어들었다. 극장에서 보지 못한 영화를 비디오 대여점을 통해 빌려보기 일쑤. 그러다 문득, 비디오테이프를 소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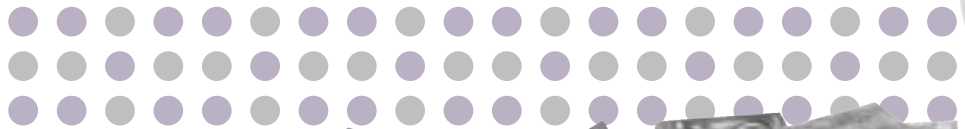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것이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때는 1996년, 그가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서부터다. 영어공부를 위해 책도 보고 학원도 다녔지만, 그가 생각해 낸 비장의 카드는 바로 영화였다. 그가 소장한 비디오테이프는 캐나다 현지에서 구입하거나 녹화한 것이 대부분이고 청계천 등에서 구입한 재고정리품도 섞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영화는 브라운관 아랫부분을

종이로 가려 한글자막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 두 번째 특별함은 그 장르에 있다. 학습 용도로 활용한다고 해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자신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져야 배우가 하는 말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유포화 팀장의 지론이다. 그래서 그가 모은 영화의 장르는 모두 그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스릴러.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묻자, 그는 주저 없이 <제리 맥과이어>를 꼽는다. 탐 크루즈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이자 마이클더글라스, 알 파치노와 함께 가장 발음이 정확한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도 역시, <제리 맥과이어>에서 나온 'You complete me'다. 짧은 단어에서 느껴지는 깊은 울림이야말로 영어의 묘미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취미가 특별한 마지막 이유는 결실을 맺는다는 것에 있다. 영화를 보며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실용적인 표현을 배운 덕분에 1998년에는 관광통역가이드 자격증까지 땀다.

한 차례의 재고정리를 기다리며, 한동안 비디오테이프 사기를 주춤했던 유포화 팀장의 차기 구입 예정작은 <컷 키스만 50번째>. 성과를 동반하는 그의 취미이기에 이번엔 영화 속 로맨틱한 사랑까지 그의 것이 되지 않을까? 그가 좋아하는 영화처럼 이번 연말, 'You complete me'라고 외칠 수 있는 따뜻한 헤피엔딩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벤처인들과 더불어 나누고픈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중이시거나, 동종 또는 벤처인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 담당자 : 김지원(zmail@empal.com, 02-515-3681)★

